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신종리스크 (New Emerging Risk)

이해랑 연구원

■ Swiss Re는 7월 8일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26개의 리스크(emerging risks)를 발표함.¹⁾

● 이하에서는 보고서가 발표한 리스크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와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살펴봄.

〈표 1〉 Swiss Re가 제시한 26개 신종리스크¹⁾

구분		분야			
		금융시장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회사 운영
영향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 • 유로존 경제위기 • 거시금융정책의 단기 실적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컴퓨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일부 국가의 탈퇴위험 • 금융규제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관련 뇌 부상 • 디지털 명예훼손 • 전자담배 • 식물병원균 • 알루미늄 위해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검사 대중화 •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 식품 및 식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사업 모델 • 기업조직 구성의 다양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션카메라 배상책임 • 4D 프린팅 • 후성유전학 • 실종항공기 추적기술 		

주: 1) 3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

2) 대기오염과 기업조직 구성의 다양성은 발생하는 데 3년 이상 소요될 리스크로 분류됨.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해양생태계 붕괴, 스마트도시, 메탄 하이드레이트 외 세 가지가 발생하는 데 3년 이상 소요될 리스크로 제시됨.

자료: Swiss Re(2014), "New Emerging Risk insights".

1) Swiss Re(2014. 7. 8)의 "New Emerging Risk insights" 보고서는 최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계량화하기 어려운 26개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 보험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위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 유로존 경제위기, 거시금융정책의 단기실적주의, 그리고 대기오염 등이 제시됨.

-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유출 및 도난 등의 위험과 관련됨.²⁾
 - 보험회사는 데이터 유출 및 도난과 관련한 직접적인 손실 보장뿐만 아니라 평판위험까지도 고려해야 함.
-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이로 인한 보험 산업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부채, 우크라이나 사태, 태국 정정불안, 브라질·인도네시아·터키 등의 국가부채 등을 들 수 있음.
- 유로존 경제위기 지속은 금융시장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로존 경기가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포르투갈 은행의 채무불능 사건 등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음.³⁾
 - 2014년 5월 현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 2.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단기성과를 지향하는 규제와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것임.
- 대기오염은 최근 사망 및 질병 유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생명·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대기오염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발표하였음.
 - 보험회사들은 질병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의 상품 개발이나 보장범위 설정 시 대기오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클라우드 기술은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에 저장하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임. (뉴데일리(2011. 6. 8), '美, 국가가 나서 클라우드 장려한다')

3)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BES)의 모기업 에스피리토 산토 인터내셔널(ESI)의 자사 단기 회사채 이자상환 연기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10일 거래정지를 당함. 이로 인해 포르투갈 은행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으나 포르투갈 금융당국이 BES의 추가자본 확보와 ESI 경영 금지 지시 등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됨. (파이낸셜뉴스(2014. 7. 13), '포르투갈 최대 은행 파산위기 일단 안정')

- Swiss Re는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탈퇴 위험(Secession risks), 금융규제의 국제화 등을 보험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통 수준인 위험으로 제시함.
 -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로 향후 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탈퇴위험은 무역 제재 및 사회적 불안 등을 조성하여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유로 회의론, 반 유럽연합(EU)정서, 스코틀랜드-영국·카탈로니아-스페인의 독립 문제 등을 유로존 탈퇴위험으로 지적함.
 -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괄적 적용(one size fits all)을 지향하고 있음.
 - 금융당국이 자국 보험산업의 특수성 및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적 수준의 일괄적 금융규제를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고서는 새로운 위험들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나 이들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Swiss Re 등)